

# 序 文

族譜는 一家의 血統과 一族의 全貌를 밝히는 史書입니다。

그것은 또한 나라의 興亡盛衰와 步調를 같이 했기에 民族史的 次元에서도 重要的 史料의 몫을 하기도 합니다。

族譜를 通하여 偉大한 祖上の 血脈을 繼承한 自己의 位置를 再認識하게 되고 先代의 偉蹟垂訓을 顯揚할 스스로의 使命을 自覺하게도 됩니다。 또한 人生을 보람있게 살기 위한 信念과 勇氣가 될수도 있고 千軍萬馬에 匹敵하는 自信의 背景이 될수도 있으며 萬枝同根의 連帶意識을 불러일으키어 同族間 和合과 敦睦의 기틀이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옛 班常階級社會에서는 家品을 測定하는 尺度가 되기도 하였기에 士大夫집안에는 없지 못할 至高至上의 寶典으로 重要視하여 왔읍니다。 우리 南平文氏는 始祖 武成公以來一千五百餘年の 悠久한 歷史와 傳統속에 많은 名賢碩學과 高官顯爵을 輩出하여 온 海東甲族이고 보면 어느 家門 못지않은 久遠한 修譜歷史를 간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生活文化가 달라지고 한글世代가 現實社會의 主役이 된 오늘에 와서는 지금까지의 族譜가 너무나 딱딱하고 漢文體記錄뿐이어서 常用정도의 漢字實力이나 譜學常識을 가지고서는 쉽게 接近하고 理解하기란 참으로 어려웠던것이 這間의 實情이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때에 이번 南平文氏大同系乘譜發刊委員會에서는 全國宗親會의 呼應과 協贊下에 文獻을 다시 考證하여 系譜와 事蹟을 바로잡으며 가리워졌던 많은 事蹟들을 새로 發掘 集大

成하여 遺跡 祠宇 墓域 등 寫眞을 現場感있게 結들여서 現代文으로 풀이하고 系譜도 一目瞭然하게 整理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簡潔한 譜牒을 編輯이게 上梓의 段階에 이르렀다 하니 이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기다렸던 時宜適切한 美舉인가 싶어 同慶해 마지않는바입니다。

그동안 族末은 大宗會 責任者로서 一臂의 힘이나마 보태지 못한것을 매우 遺憾으로 생각하며 本譜完成을 위하여 心血을 기울여 오신 洋族丈을 비롯한 任員諸宗의 勞苦에 對하여 深甚한 慰勞와 感謝를 드리는 동시에 全國僉宗께 부탁드리고져 하는바는 모처럼의 試圖로 이루어진 이 譜牒이 家門의 聖書로 누구나 모시고 朝夕으로 읽어서 偉大하시었던 先祖의 遺德을 기리고 族誼는 날로 더 두터워지며 門運의 興隆을 위하여 加一層 奮發할수 있는 指針이 되기를 바라면서 두어字 蕪辭로 序文에 가름합니다。

一九八八年 九月 一日

## 序 文

族譜는 氏族의 淵源과 世代를 밝히는 書冊으로서 옛날 中國 六朝時代의 世本과 年表가 그 始初이고 北宋의 蘇譜가 지금에 傳한다。

우리나라에서는 高麗中期の 王代實錄 璿源錄을 嚆矢로 權門勢家에서 四世까지만을 收錄한 家乘이 처음 시작되었는데 體系를 갖추어 修譜하기는 朝鮮朝中期以後의 일이다。

이처럼 族譜의 歷史는 먼 옛날부터 이기로 오늘에 와서는 모든 氏族이 비록 寒微한 집안이라도 根本을 崇尚하고 收族敦睦하는 뜻에서 修譜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一千五百餘年동안 派流가 綿遠한 海東의 名閥이오 三韓甲族인 南平文氏야 두 말 할 餘地가 없겠다。

南平文氏는 그 오랜 歷史와 傳統속에 羅麗之間에 綺羅星처럼 빛나는 많은 偉人達士와 名公巨卿을 輩出하였고 國家와 社會에 貢獻한 赫赫한 事蹟은 世家와 列傳에 昭載된 바로서 特別히 麗朝의 敬靖公 公裕 三昆弟와 忠肅公 克謙의 忠節은 千古에 빛나고 있으며 賢相名筆로 도 著名하다。 또한 名賢으로 孝惠公 維弼과 忠翊公 達漢이 있고 道德 學問및 衣被生民으로 萬世不朽의 功德을 쌓은 忠宣公 益漸이 있으며 오직 外地에서는 耽羅文物을 卮始 宣化하고 비록 작은 藩邦일망정 一百三十三年동안 그 고장을 統治經營하여 온 南濟公 諱과 其裔孫이 있다。

朝鮮朝에 와서는 嶺南의 巨儒로 茅溪 緯와 玉洞 益成을 꼽을 수 있는데 그外로 靑史에 빛

나는 忠臣 烈士 孝子 節婦 順孫이 連綿不絶하다。

祖國光復以後에도 各界 諸領域에서 頭角을 나타내서 活躍하는 名人才士가 많음은 斷然 韓國의 名門임을 斟酌케 한다。 그리고 苗裔는 蕃盛해서 經濟企劃院 人口統計에 따르면 全國 姓氏順位 二十三位를 占하고 있으니 偶然한 일이 아니다。

이 모두가 先世가 쌓아온 功德에 緣由함일 것이며 뿌리깊은 나무는 枝葉이 茂盛하고 水源이 먼 강물은 그 흐름이 長久한다는 理致를 깨닫게 하는 所以然이라 하겠다。

듣건데 이번엔 文氏門中에서는 從來 漢文으로 어렵게 펴낸 族譜를 現代文으로 풀이함과 동시에 系譜도 開卷一番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簡明하게 整理하고 到處에 散在한 遺跡 祠宇 墓域等 寫眞을 모두 收錄하여 그야말로 現代式 族譜를 編輯 印刷成冊의 段階에 이르렀다 하니 참으로 時代를 先導하는 美舉로 嘉賞할 일이라 할 것이다。

이제 그 門中에서 卷頭의 一文을 付託하여 왔기로 名家名族의 偉譜에 拙文을 掲載하게 된 것을 無上의 光榮으로 알고 南平文氏 諸彦의 앞날에 無窮한 昌盛이 있기를 祈願하면서 위와 같이 序文에 가름하는 바이다。

一九八八年八月十五日

大韓民國 國史編纂委員會 委員長

文學博士 朴永錫 謹識

